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기초조사 용역

완료 보고서

第 1884 號	第 1883 號	第 1882 號	第 1881 號
昭和 7 年 4 月 4 日	昭和 7 年 4 月 4 日	昭和 7 年 4 月 4 日	昭和 7 年 4 月 4 日
數員 目品ノ物資	數員 目品ノ物資	數員 目品ノ物資	數員 目品ノ物資
全貨金	全貨金	全貨金	全貨金
五松球 黒色雨傘 三介	五松球 黒色雨傘 三介	小冊子 黒色雨傘 三介	五松球 黒色雨傘 三介
住居人 姓名 住所	住居人 姓名 住所	住居人 姓名 住所	住居人 姓名 住所
王三 玉三	王三 玉三	王三 玉三	王三 玉三

2024년 06월

주식회사 이을문화유산연구소

제 출 문

군산시 귀하

이 보고서를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기초조사 용역”에 대한 연구 결과로 제출합니다.

2024년 06월

(주)이을문화유산연구소
대표 정 선 경



문화유산 현장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2020년 12월 8일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내용	
2.1. 대상현황	7
2.2. 사업내용	11
3. 보존연구 및 활용방안	31
4. 부록	
4.1. 자문의견서	35
5. 산출결과물	39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1. 과업명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기초 조사 용역

1.2. 과업 목적

-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群山 新興洞 日本式 家屋)은 일제강점기에 군산에서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이 건립한 일본식 2층 목조 가옥으로 2005년 06월 18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가옥 내부에서 파손된 미닫이문 창호지 사이로 기록물이 겹겹이 부착되어 있는 미닫이문 1구와 유사한 미닫이문 4구가 발견되어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의 연계성과 문화유산 가치 확인을 통해 효율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3. 과업 내용

- 과업대상 :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내 미닫이문 5구
- 과업기간 : 2023년 11월 10일 ~ 2024년 06월 17일
- 과업금액 : 일금 일천팔백팔십일만원정 (₩ 18,810,000)
- 과업내용
 - 1) 미닫이문 5구에 부착된 창호지 해체 후 기록물 낱장 분리
 - 2) 기록물 국문 해제를 통한 인문학적 기초조사(내용분석)
 - 3) 기록물 조사를 통한 문화유산 가치 및 보존·연구·활용방안 등 제시

- 수행기관 : (주)이을문화유산연구소(문화재보존과학업 제04-14-0012호)
 - 정선경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존과학)
 - 이강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존처리공)
 - 최현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표구공)
- 감 독 관 : 군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시설계 주무관 나병호
- 발 주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청

1.4. 자문회의

○ 일시 : 2024년 04월 09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주)이을문화유산연구소

○ 자문위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수 차병갑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이사(전남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박사) 임성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정상기

부안군 학예연구사 안여진

○ 자문안건 :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유물 보존 관리 및 연구 방안

○ 자문결과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유물인 일본식 격자 미단이문 4구에 부착된 기록물을 해체 및 분리한 결과, 군산지역에 행해졌던 1930년대 공익전당포 사업, 즉 전당 잡히고 대부한 전당물대장[질물대장(質物臺帳), 유질물매불장(流質物賣拂帳)과 같은 내용이 확인됨. 작업 과정 중 당초 과업 대상인 미단이문 4구 외에 미단이문 1구의 파손된 틈 사이로 유사한 기록물이 부착된 것이 확인됨. 이에 1구를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 기록물 해체 및 분리

미단이문에 부착된 기록물의 해체 및 분리 과정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질의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단섬유지로 분리 작업으로 인한 추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습을 주어 접착제를 유연하게 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분리하고, 분리된 낱장의 기록물은 프레스 건조 과정을 거쳐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2. 기록물 내용

발견 미단이문에 부착되어 있는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행해졌던 내용 및 당시 생활사, 시대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로 판단됨. 이에 기록물의 완전한 면을 대

상으로 유형 분류(수려, 질물, 입질) 또는 일본인과 조선인 등의 전당 품목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향후 인문학적 조사 및 상세한 국역 해제 작업을 수행하여 근대문화유산적 가치를 연구하여 유의미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신흥동 가옥 발견 기록물을 낱장으로 분리하여 일괄로 정리한 뒤 중성상자에 보관하여 보존한다. 신흥동 가옥 발견 기록물의 석문해제를 시행하여 문화유산적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활용 방안은 해석된 문서의 모사본(또는 영인본)을 제작하여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내에 전시하여 신흥동 가옥 발견 기록물을 대중에게 알리고, 기록물을 통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학술연구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여 영구보존할 것을 권한다. 향후 지정문화재 지정의 관건은 가옥과 발견된 기록물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관련성 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4. 본 과업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발견된 미단이문에 부착된 기록물 분리 후 조사 및 보존을 위한 내용으로, 당초 4구 외 추가되는 1구에 부착된 기록물에 대한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분리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내용

2.1. 대상 현황

2.2. 사업 내용

2. 사업내용

2.1. 대상 현황

2.1.1.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그림 6.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전경

분 류	등록문화유산 / 기타 / 주거숙박시설
수 량 / 면 적	1동, 2층 - 연면적 381.66㎡
지 정 (등 록) 일	2005.06.18
소 재 지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7 (신흥동)
시 대	1925년
소 유 단 체	군산시청
관 리 단 체	군산시청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구 히로쓰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군산에서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건축한 2층의 전통 일본식 목조가옥이다. 히로쓰는 대지주가 많았던 군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업으로 부를 쌓은 사람이다.

1945년 해방 후 적산 가옥으로 구 호남 제분으로 넘어가 한국 제분의 소유로 되어 있고, 2005년 6월 18일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83호로 등록된 이후 군산시에서 관리하면서 관람객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군산 원도심의 남서쪽 가장자리인 신흥동의 주택가 안쪽에 남서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가옥은 대규모 목조 주택 2층 건물로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 판벽과 회벽으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박공지붕과 합각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하였다. 자연석을 깬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이 놓이고 그 위에 가느다란 사각기둥이 세워져 지붕 가구가 짜여진 방식이다. 현관 부분의 지붕은 박공지붕과 모임지붕 형식인데, 처마 밑에 함석판을 덮은 차양이 덧달아져 있다. 2층 부분의 지붕은 합각지붕 형식으로 처리되었으며, 전면에 부설지붕이 달려 있다. ‘야시키형식의 대규모 목조주택으로 2층의 본채 옆에 단층의 객실이 비스듬하게 붙어있으며 두 건물 사이에는 일본식 정원이 꾸며져 있으며, 정원 내에는 큼직한 석등이 있다. 현관 안쪽의 중복도 양편에 온돌방과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이 배열되어 있고 온돌방 옆에는 외부에 면한 복도가 있는데 중간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복도의 끝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한쪽은 객실로, 또 한쪽은 본채의 부엌 쪽으로 연결된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2칸이 있는데 오시이레와 도쿄노마가 설치되었으며 전면에는 복도가 있다. 객실 부분에는 온돌방과 일식다다미방, 화장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전면과 측면에는 편복도가 연결되어 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의 생활양식 및 일본식 주택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건축물로 일제 강점기 군산에 거주하였던 일본 상류층 주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의 농촌 수탈 역사를 알 수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2.1.2.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미닫이문 5구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미닫이문 1구와 이와 유사한 미닫이문 4구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미닫이문은 각 각의 창틀에 종이와 벽지가 겹겹이 부착되어 있으나 1구는 벽지가 찢겨 내부에 부착된 기록물이 파손되어 드러나 있었고, 나머지 유사한 크기 4구 미닫이문 외부는 벽지로 마감되어 있었다. 파손된 미닫이문 창호지 사이로 드러난 기록물을 근거로 4구의 표면 벽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살펴본 결과 미닫이문 4구의 내부에도 유사한 글자들이 적힌 기록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견된 미닫이문은 각 각의 창틀에 종이와 벽지가 겹겹이 부착되어 있으나, 찢겨진 미닫이문 창호지 사이로 펼쳐진 글자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중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발견된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미닫이문 틀에 부착된 종이를 해체 및 분리하였다.



그림 7. 발견유물 미닫이문 5구



그림 8. 파손 미닫이문 현황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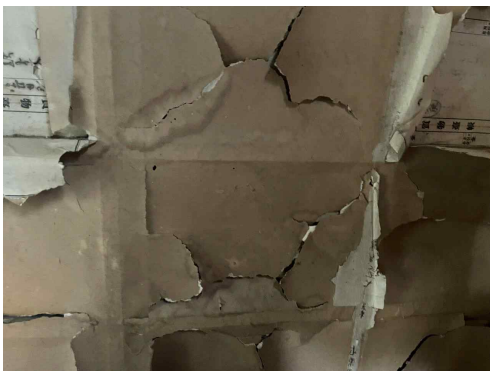


그림 9. 파손 미닫이문 현황 세부 1



그림 10. 파손 미닫이문 현황 세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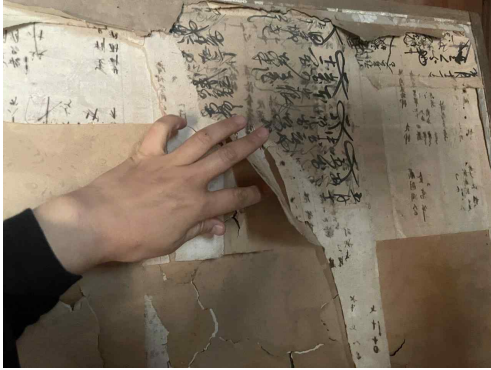


그림 11. 미단이문 기록물 부착 현황 1



그림 12. 미단이문 기록물 부착 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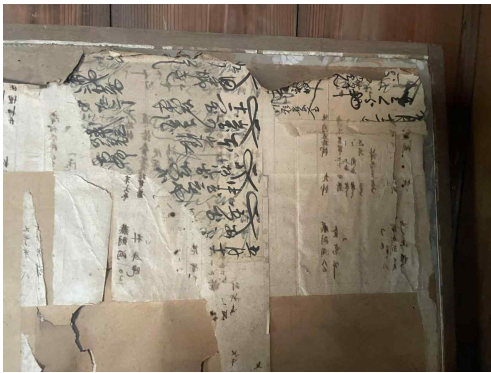


그림 13. 미단이문 기록물 부착 현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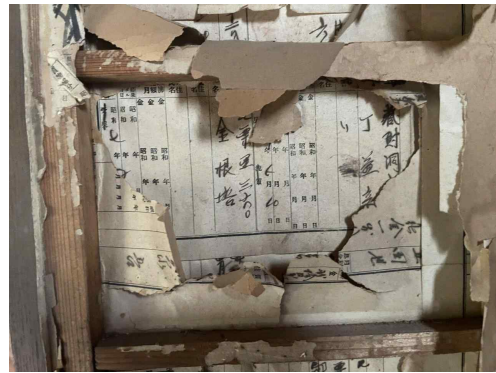


그림 14. 미단이문 기록물 부착 현황 4



그림 15. 미단이문 기록물 부착 현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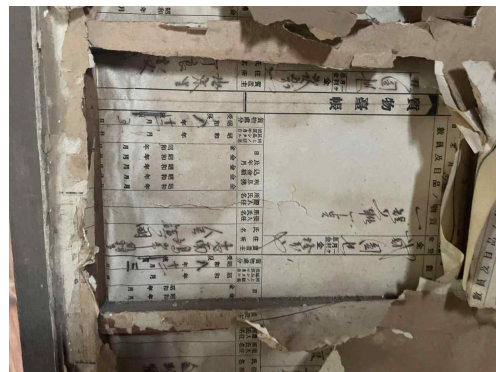


그림 16. 미단이문 기록물 부착 현황 6



그림 17. 발견유물 기록물 부착 현황 7



그림 18. 미단이문 기록물 부착 현황 8

2.2. 사업 내용

2.2.1. 기록물 해체 및 분리

공 정	내 용
유물 반출	미단이문 5구 반출
↓	
사전조사	기록물 부착 상태 조사
↓	
해체 및 기록물 분리	미단이문 틀 분리 및 낱장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짐테스트 - 가습 - 기록물 낱장 분리 - 평탄화 작업
↓	
기록물 내용 분석	기록물 내용 분석 후 자료화
↓	
유물 반입	낱장으로 해체된 기록물 보관 후 보관처 반입
↓	
보고서 작성	용역 수행 전반 사항 수록(사진 포함), 보고서 20부, USB 3매

1) 유물 반출

사업 대상인 미달이문 5구의 해체와 분리 작업을 위해 미달이문 5구를 일차적으로 한지로 보호 후 완충 효과가 있는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하였다. 무진동 차량에 미달이문 5구를 안정적으로 상차 후 보존처리실로 이운하였다.



그림 20. 미달이문 1구



그림 21. 미달이문 2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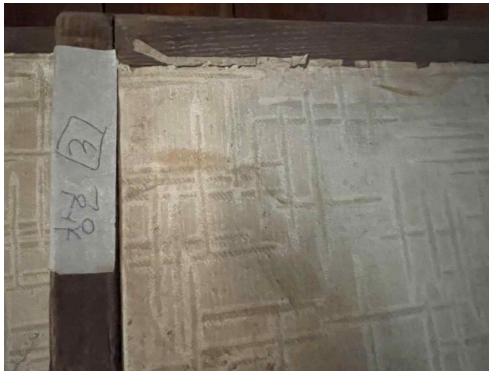


그림 22. 미달이문 3구



그림 23. 미달이문 4구



그림 24. 미달이문 5구



그림 25. 한지 포장



그림 26. 한지 포장 및 충전



그림 27. 무진동 차량 상차



그림 28. 무진동 차량 상차



그림 29. 무진동 차량 이운

2) 사전 조사

미단이문 1구 해체 결과, 미단이문은 격자형 창틀에 동일 문서 2점(문서에 필서된 것) 위에 기록물(인쇄용지에 필기된 것) 1점으로 부착되어 벽지로 마감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틀의 앞·뒷면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미단이문 1구당 6점의 기록물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림 30. 미단이문 기록물 배치도 : 1면당 벽지+기록물+문서 1+ 문서 2



그림 31. 미닫이문 최외층(벽지 형태 종이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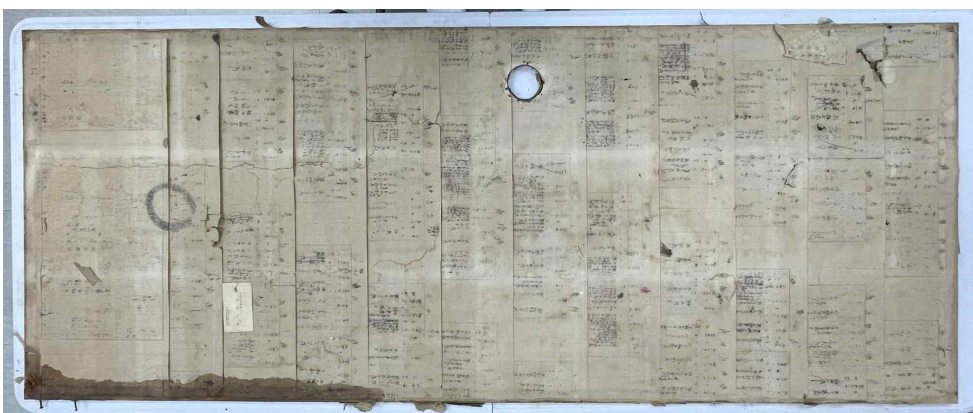


그림 32. 벽지층 제거



그림 33. 인쇄용지에 필기한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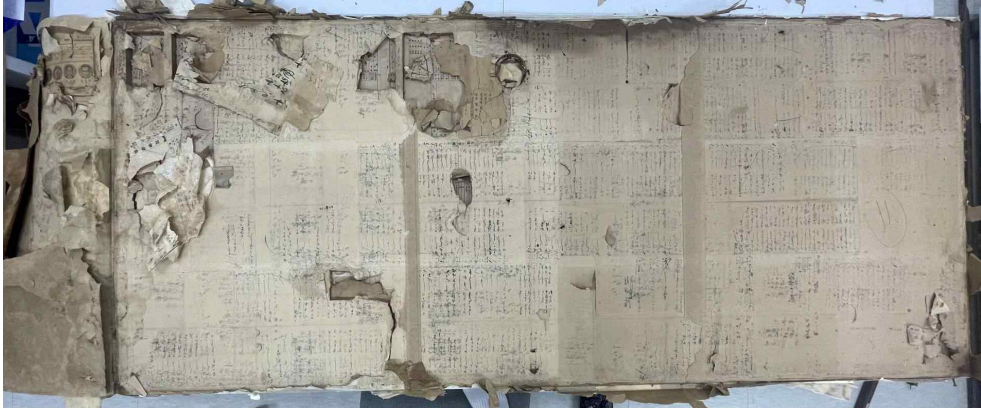


그림 34. 종이에 수기된 기록물



그림 35. 미닫이문 앞면 기록물 분리 후

3) 해체 및 기록물 분리

미단이문에 부착되어 있는 창호지 및 기록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헤라 및 보존처리용 소도구(핀셋 등)를 이용하여 내부의 기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 방법 등을 조사한 후 해체하였다.

미단이문에 부착된 벽지를 제거 후 드러난 기록물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분리 전, 수용액 적용으로 인한 필기매체의 번짐유무를 확인하는 번짐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번짐 테스트 결과, 필기 매체의 번짐이 확인되지 않아 정제수로 가습하여 접착제를 유연하게 한 후 분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층별 기록물은 띄워 바르기 형태로 부분적으로 접착되어 연결되어 층위별로 틀 모양에 따라 접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러겹의 기록물 분리는 일차적으로 창틀에서 전체적으로 해체한 후 각 층위별 기록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록물 분리에 있어 최외층부터 층위별로 제거하는 방법은 기록물 종이의 보존상태가 열악하여 바스라짐, 파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며, 층별 넓은 범위의 반복적인 가습처리와 건조 등을 적용해야 하므로 추가 손상 및 열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미단이문 표면에 부착된 벽지 형태의 종이를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가습 후 보호지로 보호하였다. 기록물은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재질이 열화되고, 일부 종이의 바스라짐이 관찰되어, 보호지를 이용하여 기록물 보호 후 분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록물의 낱장 분리 작업은 소량의 정제수로 접착면의 종이를 유연하게 해 준 후 보존처리용 도구를 이용하여 분리하였고, 분리 후 접히거나 말린 부분은 펴주어 추후 손상 발생 방지를 위해 보호지로 덧대 주었다. 기록물 분리 작업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록물 분리로 인해 글자 및 종이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였다.

분리된 기록물은 흡수지를 이용한 프레스 건조 작업을 하여 평평하게 펴 준 후 작업을 완료하였다.

해체 및 분리가 완료된 낱장의 기록물은 각 장마다 보호지를 이용하여 보호 후 중성지를 이용한 포장 후 중성상자 납입하여 보관하였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기록물은 장부 형태의 인쇄용지에 수기로 작성된 문서와 종이에 수기로 작성된 문서로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쇄용지에 수기로 작

성된 문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림 36. 보호지 보호 후 부분 가습



그림 37. 틀 분리를 위한 전체 가습



그림 38. 접착제 불림



그림 39. 창틀에서 기록물 분리



그림 40. 창틀 기록물 전체 분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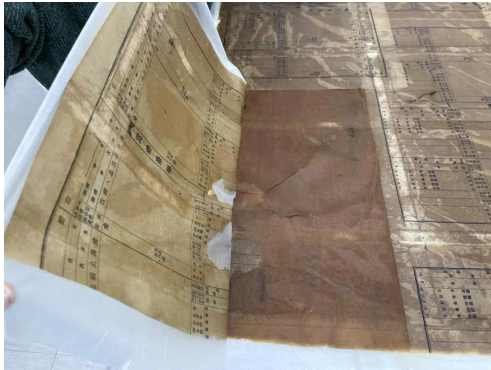


그림 41. 보호지 덧댄 후 날장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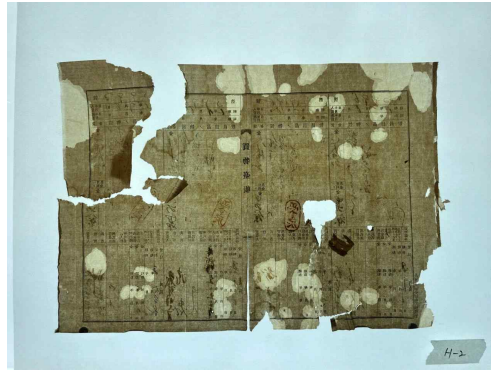


그림 42. 날장 분리 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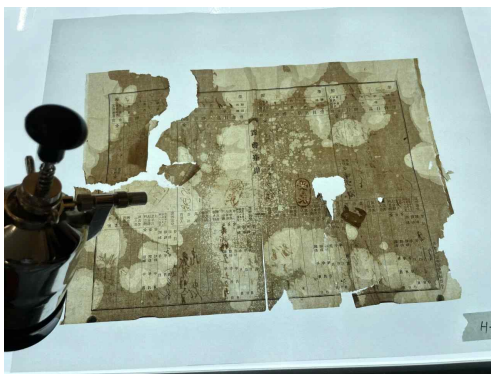


그림 43. 미세 가슴



그림 44. 형태 보정(접힘부 펴주기)



그림 45. 파손부 보호지 덧댐



그림 46. 분리 완료



그림 47. 날장 분리 후



그림 48. 미세 가슴



그림 49. 형태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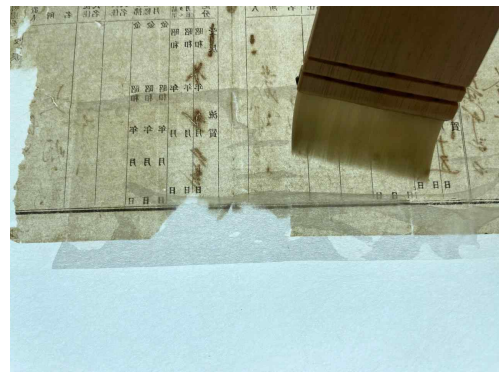


그림 50. 파손부 보호지 덧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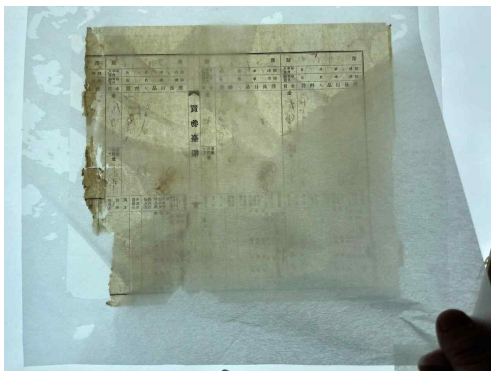


그림 51. 전체 보호지 덧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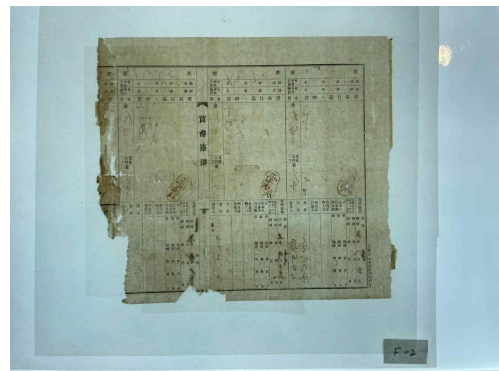


그림 52. 낱장 형태 보정 완료



그림 53. 흡습지를 이용한 습제거



그림 54. 압착 건조(프레스기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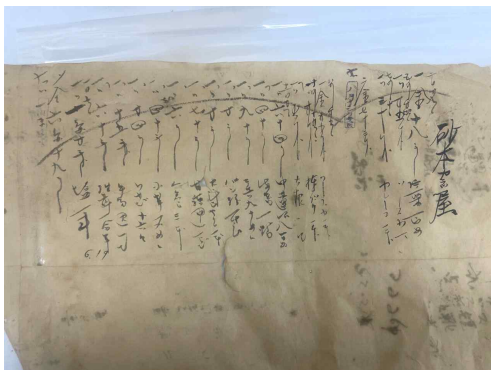


그림 55. 수기 기록물



그림 56. 인쇄 용지에 수기 기록

4) 보관 및 반납

해체 및 분리된 기록물은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보호지와 보호지 사이에 보관하고, 중성보드상자에 납입하여 보관하였다.

기록물은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 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납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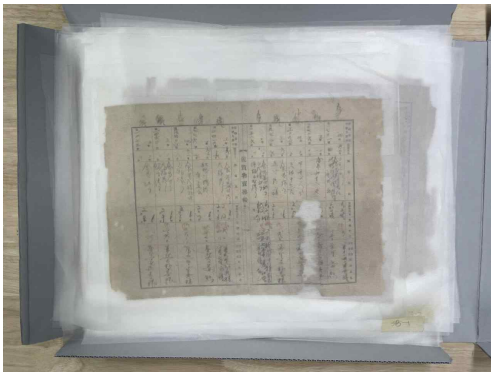


그림 57. 기록물 1



그림 58. 기록물 1 보관



그림 59. 기록물 2



그림 60. 기록물 2 보관



그림 61. 기록물 3



그림 62. 기록물 3 보관



그림 63. 기록물 4



그림 64. 기록물 4 보관



그림 65. 기록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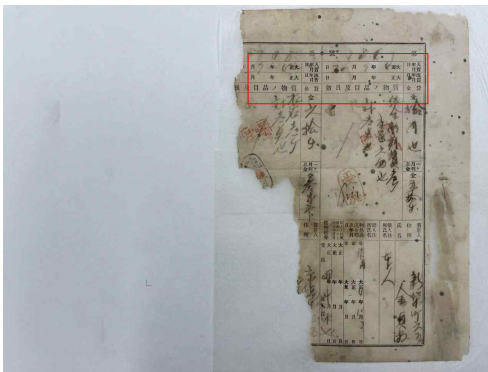
그림 66. 기록물 5 보관

2.2.2. 기록물 내용 검토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유물의 기록물은 공지에 필서를 하거나, 인쇄용지에 필서로 기록되었다. 인쇄된 용지는 질물대장(質物臺帳)과 유질물매불장(流質物賣拂帳)으로 구분된다. 특히, 질물대장에는 수려(受戻)라는 글자가 각인된 직인이 찍혀 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적혀진 受戻(수려), 流質(유질), 入質(입질) 등의 글자를 통해 그 당시 전당포 거래 내용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시기는 기록물의 기록을 통해 1930년(昭和 5)부터 1934년(昭和 9)까지로 추정된다. 다만, 미단이문 4와 미단이문 5에서 해체된 기록물에서 大正 4年(1915) 기록이 있으나 ‘大正’ 과 같이 글자 중간에 줄을 그어져 있어 시기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大正 4年’ 을 昭和 4年(1929)으로 판독한다면 발견 기록물은 1929년(昭和 4)부터 1934년(昭和 9)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향후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號 3848 第					
日 30	月 7	年 4	大正	日	年入
				月	月質
日	月	年	大正	日	年流
				月	月質

그림 68. 미단이문 5의 93번째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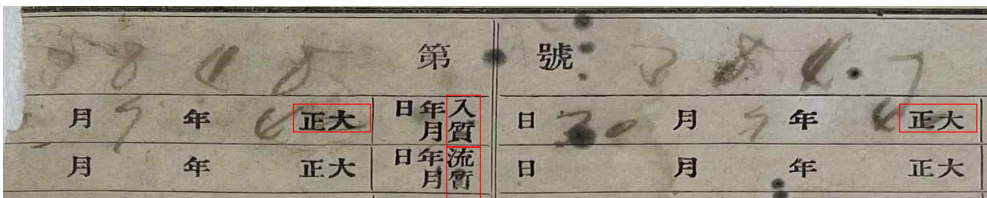


그림 69 .최초의 기록(-大正-4년 7월 30일), 入質(입질), 流質(유질) 표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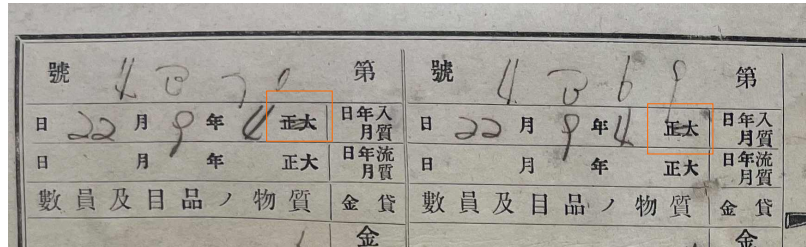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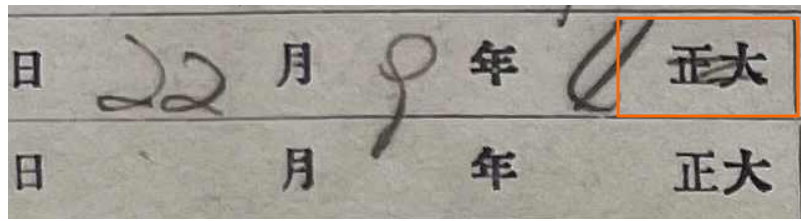


그림 70 大正 4年 표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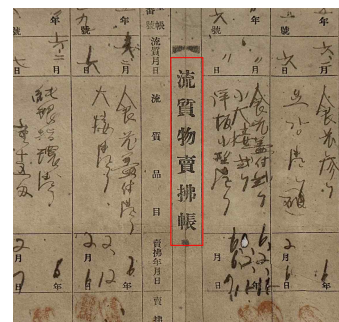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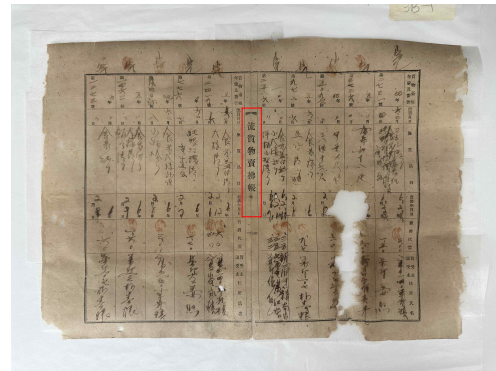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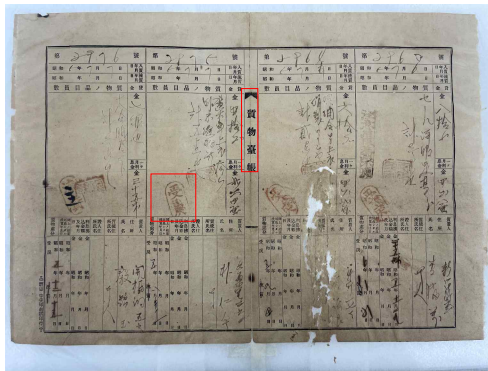


그림 71. 질물대장(質物臺帳)
인쇄용지,
受戻(수려) 직인 표기 사례

그림 72. 유질물매불장
流質物賣拂帳)
인쇄용지

기록물의 인쇄본에서 확인되는 주요 글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受戻(수려) : 受戻證券(수려증권) 채무자가 증권과 바꾸지 아니하면 채무 이행

을 할 필요가 없는 유가증권. 증권과 바꾸지 않으면 채무자가 증권상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가증권, 어음, 화물증권, 창고 증권 등(그림 71.)

○ 流質(유질) :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는 일 (그림 69.)

○ 入質(입질)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품을 저당 잡힘 (그림 69.)

그 외 기록물 내용 관련 참고사항으로 히로쓰 가옥 근처 사가와 전당포가 있었다고 한다. 내용 분석을 통해 상호 연관성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사가와(佐川) 전당포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105-4(영화동19-10)

일제강점기의 군산시 전당포로, 전북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이 집은 일명 '사가와(さがわ) 가옥'으로 불린다. '사가와'라는 이름은 집 안에 있는 철제금고의 상표명 'SAGAWA'에서 따왔으며, 일제강점기에 이 집은 전당포로 운영됐다고 한다.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구 히로쓰 가옥)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7 (신흥동 58-2)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 히로츠 기치사부로 (広津吉三郎, 1878~1949)가 1935년에 지은 가옥으로, 해방 후 적산가옥으로 호남제분이 인수하여 거주하였다.



그림 73. 전북 군산 근대화 거리

5) 보관 및 반납

해체 및 분리된 기록물은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보호지와 보호지 사이에 보관하고, 중성보드상자에 납입하여 보관하였다.

기록물은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 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납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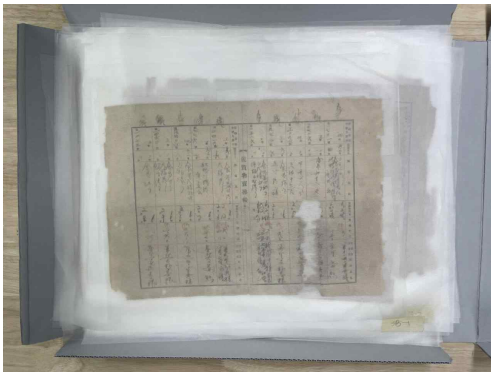


그림 74. 기록물 1



그림 75. 기록물 1 보관



그림 76. 기록물 2



그림 77. 기록물 2 보관



그림 78. 기록물 3



그림 79. 기록물 3 보관



그림 80. 기록물 4



그림 81. 기록물 4 보관



그림 82. 기록물 5



그림 83. 기록물 5 보관

3. 보존연구 및 활용방안

3.1. 보존연구 및 활용방안

3.1. 보존연구 및 활용방안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군산에서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이 건립한 집이다. 최근 그곳에 간수되고 있던 미닫이문 5구의 미닫이문이지 안쪽에 기록물이 발견되어, 기록물 조사를 위해 해체 분리하였다.

발견된 기록물은 ‘질물대장(質物臺帳)’ 과 ‘유질물매불장(流質物賣拂帳)’ 라는 인쇄지에 장부 형태로 필서된 기록물과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종이에 수기된 기록물이다. 또한, 기록물 내용을 통해 작성 시기는 1929년(昭和 4)부터 1934년(昭和 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발견된 기록물 중 인쇄 용지에 필서된 내용을 통해 군산지역에 행해졌던 1930년대 전당포 사업, 즉 전당 잡히고 대부한 전당물대장[질물대장(質物臺帳), 유질물매불장(流質物賣拂帳)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 내용이 공익전당포 운영 내용인지, 사설 전당포 운영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당포는 식민지 시기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일종의 금융기관이었다. 전당포는 이용자격에 제한이 없고 일용품을 담보로 하여 손쉽게 금전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이 생활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곳으로 사설 전당포 운영은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었다. 한편, 식민지 당시 일제는 서민의 금융 생활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공설 전당포 설립을 추진하여 적극 활용을 권장하였지만, 생색내기 정도의 정책에 불과한 것이었고 다수의 서민들은 이자가 높고 불리하더라도 사설 전당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¹⁾

이러한 일제하 전당포 사업 연구 결과로는 전당포의 운영 실태 연구를 통한 전당포목, 전당업자의 횡포, 식민지성이 짙은 고이자율을 연구한 결과와 이에 따른 서민의 생활사, 경제사 등의 연구가 있으며, 전당업이 일본인의 토지 수탈 방식의 일환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식민지 당시제도 금융권의 틈새에 놓여진 전당업의 부당한 이자율이나 거래 품목 등을 통해 기층 민중에 대한 일제의 정책 파악과 그 당시 생활사, 경제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²⁾

1) 이병례, 「서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당포 관련 기록들」, 『기록인』 23, 2013.

2) 이병례, 「일제하 전당포 운영실태와 ‘공익’ 개념의 한계」, 『사람 제46호』, 수선사학회, 2013.

그 외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경성 지역의 전당포 사업을 다룬 연구 성과가 있다.³⁾

금번 용역 사업의 성과물인 군산 지역의 일제강점기 1930년대 전당포 기록물의 발견을 통해 식민지 당시 일본의 직접적인 식민지 및 경제적 영향권 아래 있었던 군산 지역 전당포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것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으며, 당시 군산 서민들이 전당포에 어떠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지, 얼마나 되는 이자 즉 이식(利息)을 지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중요 사료로서의 가치적 의미도 크다. 따라서 향후 중요 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1930년대 군산 지역의 기층민의 생활사, 경제사, 시대적 현황, 지역적 특징, 전당포 이용자, 전당 품목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심도있는 학술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록물의 완전한 면을 대상으로 유형 분류(수려, 질물, 입질) 또는 일본인과 조선인 등의 전당 품목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인문학적 조사 및 상세한 국역 해제 작업을 수행하여 학술연구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발견된 기록물로 그 지정문화유산과의 연관성 및 관련성의 자료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본 고의 내용 분석에서 살펴본 바, 기록물 작성 당시 히로쓰가옥(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근처 사가와 전당포와의 연관성 또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축적된 학술연구자료를 토대로 향후 근대문화유산적 가치 부분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발견된 기록물의 해석된 내용등을 토대로 모사본 또는 학술자료 스토리텔링 자료 등 전시자료를 확보하여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내에 전시함으로써 신흥동 가옥 발견 기록물을 대중에게 알리고, 기록물을 통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 여러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계획하는 것 또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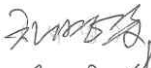



3) 최규진, 「경성의 뒷모습, 전당포」, 『내일을 여는 역사』, 51, 2013.

4. 부록

4.1. 자문의견서

4. 부록

4.1. 자문의견서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유물 기초 조사 용역			
문화재명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지정일	2005년 06월 18일
자문안건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유물 보존 관리 및 연구 방안		
<p>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 유물인 일본식 격자 미닫이문 4구에 부착된 기록물을 해체 및 분리한 결과, 군산지역에 행해졌던 1930년대 공익전당포 사업, 즉 전당 잡히고 대부한 전당물대장[질물대장(質物臺帳), 유질물매불장(流質物賣拂帳)과 같은 내용이 확인됨. 작업 과정 중 당초 과업 대상인 미닫이문 4구 외에 미닫이문 1구의 파손된 틈 사이로 유사한 기록물이 부착된 것이 확인됨. 이에 1구를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p> <p>1. 기록물 해체 및 분리 미닫이문에 부착된 기록물의 해체 및 분리 과정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질의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단섬유지로 분리 작업으로 인한 추가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습을 주어 접착제를 유연하게 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분리하고, 분리된 낱장의 기록물은 프레스 건조 과정을 거쳐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p> <p>2. 기록물 내용 발견 미닫이문에 부착되어 있는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행해졌던 내용 및 당시 생활사, 시대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로 판단됨. 이에 기록물의 완전한 면을 대상으로 유형 분류(수려, 질물, 입결) 또는 일본인과 조선인 등의 전당 품목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향후 인문학적 조사 및 상세한 국역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 근대문화유산적 가치를 연구하여 의미미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p> <p>3.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신흥동 가옥 발견 기록물을 낱장으로 분리하여 일괄로 정리한 뒤 증성상자에 보관하여 보존한다. 신흥동 가옥 발견 기록물의 석문해체를 시행하여 문화유산적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활용 방안은 해석된 문서의 모사본(또는 영인본)을 제작하여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내에 전시하여 신흥동 가옥 발견 기록물을 대중에게 알리고, 기록물을 통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학술연구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여 영구보존할 것을 권한다. 향후 지정문화재 지정의 관건은 가옥과 발견된 기록물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관련성 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4. 본 과업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발견된 미닫이문에 부착된 기록물 분리 후 조사 및 보존을 위한 내용으로, 당초 4구 외 추가되는 1구에 부착된 기록물에 대한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분리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p>			
2024년 04월 09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수		차 병 갑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이사(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박사)		임 성 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정 상 기 	
부안군 학예연구사		안 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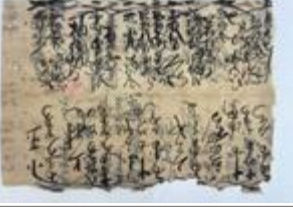
5. 산출 결과물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산출 결과물**

구분	수량 (장)	비고
창호 1	100	
창호 2	136	
창호 3	118	
창호 4	141	
창호 5	142	
기타	4	
합계	641	

창호 1 기록물 100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1-1		1-6		1-11		1-16	
1-2		1-7		1-12		1-17	
1-3		1-8		1-13		1-18	
1-4		1-9		1-14		1-19	
1-5		1-10		1-15		1-20	



창호 1 기록물 100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1-21		1-26		1-31		1-36	
1-22		1-27		1-32		1-37	
1-23		1-28		1-33		1-38	
1-24		1-29		1-34		1-39	
1-25		1-30		1-35		1-40	

창호 1 기록물 100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1-41		1-46		1-51		1-56	
1-42		1-47		1-52		1-57	
1-43		1-48		1-53		1-58	
1-44		1-49		1-54		1-59	
1-45		1-50		1-55		1-60	

창호 1 기록물 100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1-61		1-66		1-71		1-76	
1-62		1-67		1-72		1-77	
1-63		1-68		1-73		1-78	
1-64		1-69		1-74		1-79	
1-65		1-70		1-75		1-80	





















창호 1 기록물 100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1-81		1-86		1-91		1-96	
1-82		1-87		1-92		1-97	
1-83		1-88		1-93		1-98	
1-84		1-89		1-94		1-99	
1-85		1-90		1-95		1-100	

창호 2 기록물 136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2-1		2-6		2-11		2-16	
2-2		2-7		2-12		2-17	
2-3		2-8		2-13		2-18	
2-4		2-9		2-14		2-19	
2-5		2-10		2-15		2-20	

창호 2 기록물 136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2-21		2-26		2-31		2-36	
2-22		2-27		2-32		2-37	
2-23		2-28		2-33		2-38	
2-24		2-29		2-34		2-39	
2-25		2-30		2-35		2-40	

창호 2 기록물 136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2-41		2-46		2-51		2-56	
2-42		2-47		2-52		2-57	
2-43		2-48		2-53		2-58	
2-44		2-49		2-54		2-59	
2-45		2-50		2-55		2-60	

창호 2 기록물 136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2-61		2-66		2-71		2-76	
2-62		2-67		2-72		2-77	
2-63		2-68		2-73		2-78	
2-64		2-69		2-74		2-79	
2-65		2-70		2-75		2-80	





















창호 2 기록물 136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2-81		2-86		2-91		2-96	
2-82		2-87		2-92		2-97	
2-83		2-88		2-93		2-98	
2-84		2-89		2-94		2-99	
2-85		2-90		2-95		2-100	

창호 2 기록물 136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2-101		2-106		2-111		2-116	
2-102		2-107		2-112		2-117	
2-103		2-108		2-113		2-118	
2-104		2-109		2-114		2-119	
2-105		2-110		2-115		2-120	

창호 2 기록물 136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2-121		2-126		2-131		2-136	
2-122		2-127		2-132			
2-123		2-128		2-133			
2-124		2-129		2-134			
2-125		2-130		2-135			

창호 3 기록물 118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3-1		3-6		3-11		3-16	
3-2		3-7		3-12		3-17	
3-3		3-8		3-13		3-18	
3-4		3-9		3-14		3-19	
3-5		3-10		3-15		3-20	












창호 3 기록물 118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3-21		3-26		3-31		3-36	
3-22		3-27		3-32		3-37	
3-23		3-28		3-33		3-38	
3-24		3-29		3-34		3-39	
3-25		3-30		3-35		3-40	

창호 3 기록물 118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3-41		3-46		3-51		3-56	
3-42		3-47		3-52		3-57	
3-43		3-48		3-53		3-58	
3-44		3-49		3-54		3-59	
3-45		3-50		3-55		3-60	
















창호 3 기록물 118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3-61		3-66		3-71		3-76	
3-62		3-67		3-72		3-77	
3-63		3-68		3-73		3-78	
3-64		3-69		3-74		3-79	
3-65		3-70		3-75		3-80	

창호 3 기록물 118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3-81		3-86		3-91		3-96	
3-82		3-87		3-92		3-97	
3-83		3-88		3-93		3-98	
3-84		3-89		3-94		3-99	
3-85		3-90		3-95		3-100	





















창호 3 기록물 118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3-101		3-106		3-111		3-116	
3-102		3-107		3-112		3-117	
3-103		3-108		3-113		3-118	
3-104		3-109		3-114			
3-105		3-110		3-115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1		4-6		4-11		4-16	
4-2		4-7		4-12		4-17	
4-3		4-8		4-13		4-18	
4-4		4-9		4-14		4-19	
4-5		4-10		4-15		4-20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21		4-26		4-31		4-36	
4-22		4-27		4-32		4-37	
4-23		4-28		4-33		4-38	
4-24		4-29		4-34		4-39	
4-25		4-30		4-35		4-40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41		4-46		4-51		4-56	
4-42		4-47		4-52		4-57	
4-43		4-48		4-53		4-58	
4-44		4-49		4-54		4-59	
4-45		4-50		4-55		4-60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61		4-66		4-71		4-76	
4-62		4-67		4-72		4-77	
4-63		4-68		4-73		4-78	
4-64		4-69		4-74		4-79	
4-65		4-70		4-75		4-80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81		4-86		4-91		4-96	
4-82		4-87		4-92		4-97	
4-83		4-88		4-93		4-98	
4-84		4-89		4-94		4-99	
4-85		4-90		4-95		4-100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101		4-106		4-111		4-116	
4-102		4-107		4-112		4-117	
4-103		4-108		4-113		4-118	
4-104		4-109		4-114		4-119	
4-105		4-110		4-115		4-120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121		4-126		4-131		4-136	
4-122		4-127		4-132		4-137	
4-123		4-128		4-133		4-138	
4-124		4-129		4-134		4-139	
4-125		4-130		4-135		4-140	

창호 4 기록물 141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4-141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1		5-6		5-11		5-16	
5-2		5-7		5-12		5-17	
5-3		5-8		5-13		5-18	
5-4		5-9		5-14		5-19	
5-5		5-10		5-15		5-20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21		5-26		5-31		5-36	
5-22		5-27		5-32		5-37	
5-23		5-28		5-33		5-38	
5-24		5-29		5-34		5-39	
5-25		5-30		5-35		5-40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41		5-46		5-51		5-56	
5-42		5-47		5-52		5-57	
5-43		5-48		5-53		5-58	
5-44		5-49		5-54		5-59	
5-45		5-50		5-55		5-60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61		5-66		5-71		5-76	
5-62		5-67		5-72		5-77	
5-63		5-68		5-73		5-78	
5-64		5-69		5-74		5-79	
5-65		5-70		5-75		5-80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81		5-86		5-91		5-96	
5-82		5-87		5-92		5-97	
5-83		5-88		5-93		5-98	
5-84		5-89		5-94		5-99	
5-85		5-90		5-95		5-100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101		5-106		5-111		5-116	
5-102		5-107		5-112		5-117	
5-103		5-108		5-113		5-118	
5-104		5-109		5-114		5-119	
5-105		5-110		5-115		5-120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121		5-126		5-131		5-136	
5-122		5-127		5-132		5-137	
5-123		5-128		5-133		5-138	
5-124		5-129		5-134		5-139	
5-125		5-130		5-135		5-140	

창호 5 기록물 142장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5-141															
5-142															

기타 기록물 4장

<p>기타 1</p>									
<p>기타 2</p>									
<p>기타 3</p>									
<p>기타 4</p>									

국가등록문화유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발견유물 기초조사 용역

발행일 | 2024년 06월
시행사 | 주식회사 이을문화유산연구소
발행처 | 군산시 · (주)이을문화유산연구소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3111호
전 화 | 063-211-1019
팩 스 | 063-214-1020
원 고 | 주식회사 이을문화유산연구소

주식회사 이을문화유산연구소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